



김수자 '보따리-알파 비치 나이지리아' 싱글채널 비디오, 2001. [사진제공=MAAP, 호주]

슬픈 수평선

6개 갤러리 연계 '하늘땅바다'展

하나의 전시를 위해 여섯 개 갤러리가 뭉쳤다. 갤러리인 갤러리스케이프, 옴시스아트, 원앤제이 갤러리, 이화익갤러리, 그리고 아트선재센터는 22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'하늘땅바다(LANDSEASKY)'전을 연다. 다수의 상업 갤러리가 한 전시를 연계해서 개최하는, 이례적 이벤트다. 2013년 '아시아의 호주 예술상'을 받은 MAAP(Media Art Asia Pacific)가 기획했다.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(4월 19일~7월 20일)를 거쳐 호주 브리즈번(9월 18일~11월 16일)까지 이어지는 순회 전시다.

이번 전시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헤이모 조베르니그(56·오스트리아), 얀 디베츠(73·네덜란드), 데렉 크랙클러(62·호주), 왕평(50·중국) 등 해외 작가들과 김수자(57), 정연두(45) 한국 작가까지 20여명의 비디오아티스트가 참여했다. 모든 작품은 전시 제목인 '하늘땅바다', 즉 수평선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를 담았다. 예술가들은 수평선을 놓고 인간의 지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태를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했다.

TV나 스마트폰 등 일방향적인 영상매체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이들의 작품은 한편 심심하고 어렵기까지 하다. 크로마키(Chroma-key·특정 색을 빼버리고 다른 배경을 합성시키는 비디오기술)를 활용한 헤이모 조베르니그의 '무제'는 6개 스크린을 엮갈리게 중첩한 뒤 영상을 투사한다. 영상 속 인물은 그 안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며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우리 앞에 가져온다. 초창기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얀 디베츠의 '수평선' 시리즈도 한자리에 모였다. 김수자는 '보따리-알파 비치 나이지리아'를 선보였다. 흑인 노예를 송출하던 나이지리아 알파 해변을 촬영한 이 작품은 위아래가 뒤집어진 수평선이다. 작가가 "지금까지 본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선"이라고 말한 알파 해변은 노예무역의 아픈 역사를 담고도 묵묵하고 고요하다.

전시를 기획한 MAAP의 김 메이첸 디렉터는 "갤러리와 갤러리를 이동하는 사이, 그 짧은 거리까지 전시의 연장선상이 됐다. 관람객의 사유를 도울 수 있는 장치라고 본다"고 말했다.